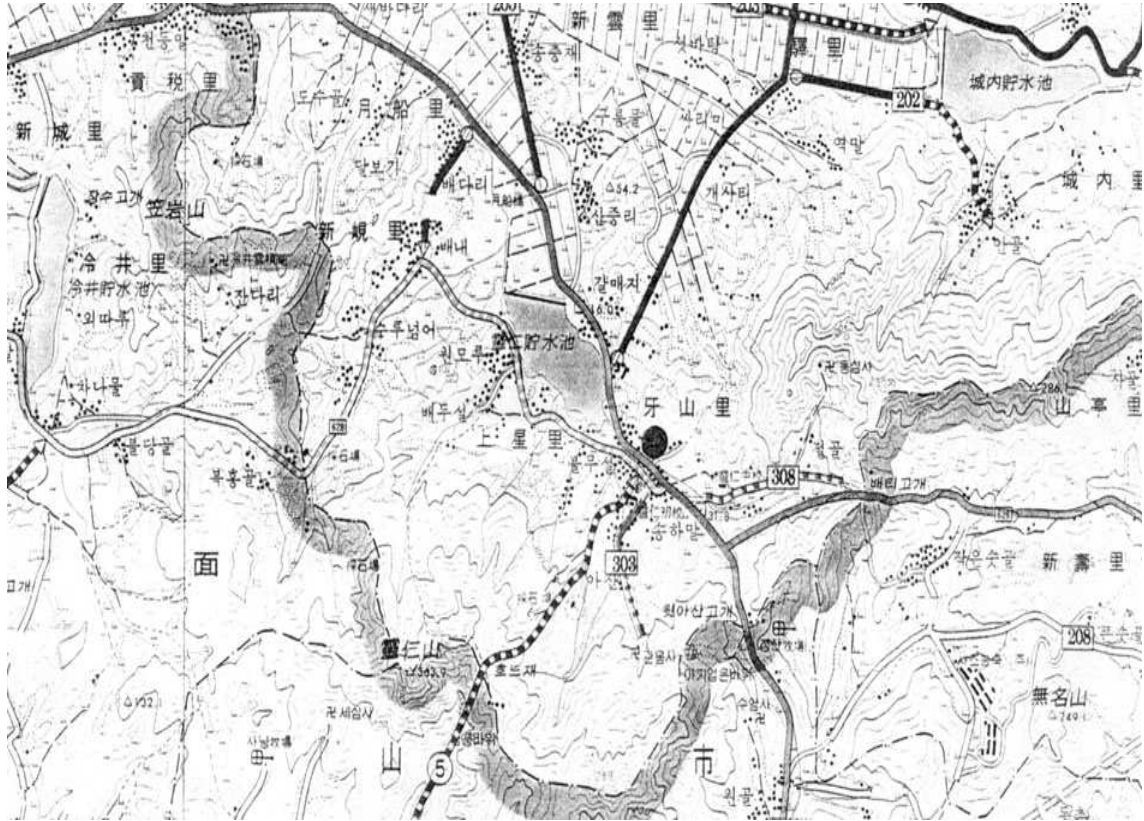


상성리·上星里

본래 아산군 현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불리, 궁대리, 원우리, 성대리를 병합하여 상불과 성대의 이름을 따라 상성리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되었다. 상성리의 인구는 총 345명이며 97가구가 살고있다.

<상성리 위치도>



상성리

상성리는 영인산을 남쪽으로 하고 불무실, 옥거리, 궁터, 성대(배두실), 원우리의 5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당시 상성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경도 126-56-40, 위도36-51-20)

면소재지인 아산리 서쪽에 인접해 있는 마을로 남동쪽에 영인산이 있고 마을 앞북동쪽으로 영인 저수지가 펼쳐져 있다.

2) 현 황

상성리는 한 마을의 자연 부락으로서 작게는 옥거리, 궁터, 성대(배두실), 원우리로나뉜다. 인구는 남자 169명, 여자 158명으로 327명이 살고 있으며 세대수는 99세대에 이른다. 주민들 72%가 농업에 종사하고, 15%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의 전체 논 면적은 논이 72ha와 밭은 27ha이다.

- 인구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상성리	327명	169명	158명

- 생 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기타
상성리	100%	72%	15%	13%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상성리	99ha	72ha	27ha

- 농기계 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상성리	37대	10대	·	10대	7대	13대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 프	사물놀이악 기	방송시설
상성리	1채	1개	1조	

연령분포에서는 40~60대 까지 50명으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0이상
상성리	25명	35명	12명	48명	50명	55명	50명	30명	10명	2명

성씨분포에서는 성산김씨가 32가구 되며 김해 김씨가 7가구등으로 김씨가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다. 상성리의 학생분포에서는 총 52명으로 조사되었다.

- 성씨별 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심씨	장씨	기타
상성리	53%	9%	9%	2%	4%	23%

- 학생 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상성리	20명	13명	15명	4명

- 최고령자

94세의 신소량 할머니

- 호당평균소득

년/700만원

3) 자연 경관

아산리에서 영인교회 앞으로 난1차선 도로로 가다보면 영인저수지 옆으로 길이 구불구불하게 나있다. 언덕에 축사가 있고 축사를 지나 작은 삼거리가 나오는데 솔밭사이로 길이란 오른쪽 길로 가면 마을 입구이다. 성산김씨 세거비 아래로 가구들이 밀집해 있다.

4) 변 천

아산군 현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불리, 궁대리, 원우리, 성대리를 병합하여 상불과 성대의 이름을 따라 상성리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상산 김씨가 약 550년의 역사로 상성리 에서는 제일 많은 32호가 살고있으며 성산김씨 세거비가 있다.

6) 지 명

배두실 : 상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 영인산 북쪽에 있는데 별모양이라 함.

불무실 : 상성리에 붙은 마을.

원모루 : 배두실 북쪽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 흥인원이 있었음.

신랑봉 : 배두실 서북쪽 들가운데 있는 외단 산. 옛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우귀하다가 도둑을 만나 신부가 항거하다가 죽음에 신운리 통미에 장사지내고 신랑도 병들어 죽어서 이산에 장사하였으므로 이산을 신랑봉이라 하고 신운리 통미를 각시봉이라 함.

궁 터 : 옥거리 위에 있는 터.

산 낙포대 : 배두실 남쪽에 있는 영인산 아래의 놀이터로 영인 수석원화동천이라 써있음.

영인 저수지 : 상성리, 아산리를 끼고 있는 만수량 1,183톤인 저수지.

옥거리 : 불무실 옆에 있는 길. 전엔 옥이 있었다함.

고려장터 : 성대남쪽 영인산 북쪽에 고려장터가 있었다.

백정촌 : 상성리 산 79 - 3 산 80번지 일대로 옥골에 백정의 무덤이 있는산

병 막 : 상성리 70번지 주변으로 일제 강점기에 전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던 곳으로 현재는 민가가 있다.

영인산(靈仁山) : 영인, 염치, 인주의 3개 읍·면에 걸쳐 있는 큰산. 높이 364m의 높은산으로 험준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으며, 정상 부근에 "용샘"이라는 우물이 있어 물이 마르지 않으며,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고 한다. 백제때의 산성으로 석성(石城)이 있어 "영인산성"이라고 하며 일명 신성산성(新城山城)이라고 한다.

깃대봉 : 영인산 세 봉우리 중 가운데 있으며, 정상 바위에 구멍을 뚫어 깃대를 꽂았다 한다.

평택봉 : 고려시대에 몽골군이 쳐들어 왔을 때 평택사람들이 피난을 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토성이 있고 평택성(平澤城)이라 한다.

연화봉 : 옛날부터 엄봉으로 불려오다 "민족의 시련과 영광의 탑" 이 건립(1998. 8. 14) 되어 있으며, 멀리서 보면 연꽃 모양으로 보이기도 해 연화봉이라고도 한다.

안 산 : 벼두실 앞에 있는 산.

점 골 : 엄봉의북쪽 능선을 따라오다 패러글라이더 타는 곳에서 발원하여 궁아래로 흐르는 내.

큰골(大嶺) : 영인산 깃대봉과 편택봉 중간에서 발원하여 오다 샘마지골과 합류하여 낙포대의 놀이터를 지나 성대(벼두실) 앞 내가 되어 영인 저수지 합류된다.

용 샘 : 영인산 엄봉 밑에 있는 샘으로 이곳에서 용이 승천하였다 함. 이 지역에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를 올렸다.

궁터 연못 : 상성리 142-2번지에 연못이 있는데 주인이 연못을 매워 밭으로 경작을 하는데, 하루는 주인이 못을 다시 복원하라는 꿈을 꾸고 본래의 연못 반을 복원하였더니 연꽃이 피어났으며 현재도 피고 있다.

낙포대 : 큰골에 있는 놀이터로 약 2m의 낙수가 되는 곳이 있고, 하천 바닥 바위에 『영인수석원화동천(靈仁水石元化洞天)』이라 써있다. 북쪽 200m 지점에 절터가 있으며, 이곳에서 탑 발침돌을 채취하여 가정에 지대석으로 사용하였다 한다. 또 이곳으로 전라도민들이 올라온 3마지기를 팔아서 구경을 왔었다 한다.

궁터 갯변 : 나무하는 아이들이 나무해 가지고 오다가 쉬면서 공치고 놀던 곳이다.

옥 거리 : 일설에는 벼두실(성대) 앞산(안산)에 있는 마을로 아산 옥거리에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옥거리 또는 옥고리라 부른다.

엄봉골 : 영인산 동쪽에 있는 엄봉을 발원으로 불무실 마을 내가 됨. 이 골 중간 썸에 회양목이 자생하고 있고 영인 저수지로 합류된다.

빈자지골 : 영인산 동쪽으로 엄봉을 발원으로 북쪽으로 흐르는 내로, 옥거리 앞으로 흐르고 영인 저수지로 합류된다.

샘마지골 : 영인산 동쪽 엄봉의 북쪽에 용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 발원하여 흐르며 큰골 낙포대에서 합류한다.

7) 전 설

十 신랑봉과 각시봉

영인면 상성리 서북쪽 들가운데 슬픈 이야기를 간직하며 외로이 서있는 산이 있다. 유복자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고 밤늦게까지 길쌈을 하시는 어머니 옆에서 열심히 글을 읽었다. 도령의 글 읽는 소리는 환한 달빛에 하얗게 피어나는 박꽃처럼 낭랑히 들리었다. 어느날 저녁무렵 항상 산책을 하던 그는 별이 환하게 빛나는 밤에 산길을 건너다가 여인의 애달프고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니 바위옆에 서 있는 큰 나무 아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을 드리는 처녀가 있었다. "천지신명께 비옵나이다. 저의 아버님의 병환이 하루 속히 낫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 드리는 그여인에게서 그는 성스러움을 느꼈다. 그를 발견한 처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안심하십시오, 산길을 거닐다가 목소리가 들리 시기에 저도 모르게 밤길을 이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낭자 아버님의 병환이 빨리 나으시길 저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처녀의 맑고 고요한 눈을 볼 때부터 그는 처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부터 그는 매일 이 나무 아래를 거니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어느새 그 처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 처녀 역시 그의 깊은 생각과 진실한 마음을 사모하게 되었다. 여러달 동안의 지성에 처녀의 아버지는 병환이 나아져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그후에도 그는 계속 나무 아래를 거닐었다. 처녀 역시 나무 아래를 자주 거닐었다. 만나면 만날수록 둘은 사모하는 정이 더해갔다. 별이 까무룩 잠드는 밤에 그는 처녀에게 고백했다. "낭자 나는 당신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오, 오랫동안 간직 하여온 사모의 정을 받아 주시오. "나와 혼인을 해주겠오?"

처녀는 놀랐지만 곧 정색을 하고 도령에게 "도련님, 도련님께서 장차 이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셔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도련님 한분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한날 천한 계집 때문에 도련님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아예하지 마십시오. "처녀는 도령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사라졌다. 그 뒤로 그처녀는 다시는 나무 아래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 도령과 사랑을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한점의 티도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간직하고 싶었다. 둘이 혼인을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장애가 있으므로 처녀는 도령을 위하여 괴로움을 혼자 삼키려고 하였다.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도령은 그날 어머니에게 처녀와 혼인을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못한다며 필쩍 뛰시었다. 이레 동안을 간청하던 도령은 병이 나서 누웠다. 물 한모금 넘기지 못하며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허락을 하였다. 그러나 도령의 어머니가 허락을 했다고 해서 혼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도령과 처녀는 날을 받아 혼례를 치루었다. 혼례를 치루고 신랑집으로 가던 중 지금 신운리에 있는 길에 잠시 쉬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방에서 갑자기 도둑떼가 밀어닥쳐 삼시간에 가마를 에워싸고 신부를 납치해 가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부는 끝까지 반항을 했으나 역부족이라 결국은 자결을 하고 말았다. 이도둑떼는 신부를 짝사랑하던 불량배의 소행이었다. 그녀는 가슴에 붉은 꽃을 안은채 아무말도 없었다. 도령은 실성한 사람처럼 통곡을 하여, 신운리에 있는 산에 신부를 장사를 지낸 신랑은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신랑 역시 병세가 악화되어 신부가 있는 산에 묻히었다. 사람들은 도령이 묻힌산을 신랑봉이라 하고 처녀가 신운리에 묻힌 산을 각시봉이라 이름하였다.

(신랑봉은 경지정리로 없어짐.)

十어금니 바위

고려말엽 돈 많고 부자인 욕심장이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많은 땅이 있었기에 그에 따른 소작인들로 자연 땅을 수 밖에 없었다. 노인에게는 칠삭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작인들 중 어느 한 딸을 며느리로 맞으려 무척이나 애쓰고 있었다. 가난한 농갓집 처녀이기는 하나 아름답고 현명하여 누구 못잖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처녀가 있었다. 노인은 몇번이나 청혼을 했지만 승낙은 얻지 못하였다. 누가 칠삭둥이에게 딸을 주려 하겠는가? 그러자 노인은 소작할 땅을 주진 않겠노라고 벌려 대었다. 소작을 하여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 부부에게는 보통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부모는 망설였다. "우리는 좀 있으면 저승으로 떠나겠지만 우리 자식은 앞길이 구만리 같지 않은가!"

결국 그들은 허락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효성스런 그들의 딸은 스스로 혼인을 하겠다고 나섰다.

가족도 살고 또 자신도 편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는 펄펄 뛰었지만 외동딸의 가룩한 마음을 저버리진 못했다. 혼인날 그의 부모들의 눈빛은 말하듯 했다. "이제 너는 내 딸

이 아니다" 큰 흥년인데도 그 구두쇠의 광에는 양식이 그득했다. 며느리는 동냥 오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몰래주곤 했다. 또 남편은 가르치는데도 여념이 없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남편은 학문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노인은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나 칠삭둥이가 무슨 공부를 하라 싶어 아들이 졸라대자 미쳤다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내쫓아 버렸던 것이다. 그후 며느리는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어느새인가 그녀의 뱃속엔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초라하게 차린 중 하나가 시주를 하러 왔다. 며느리는 여느때처럼 시아버지 몰래 쌀 한바가지를 시주했다. 옆친데 겹친 격으로 그것을 노인에게 들려 버렸다. 며느리는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노인은 크게 성을 내며 중이 가진 쌀을 뺏고는 외양간의 쇠통을 가득 뒤집어 씌우고 시주 그릇에 가득담아 주었다. 욕설과 함께 퍼붓던 노인이 안으로 들어가자 중은 며느리에게 슬며시 말했다. "지금 집에서 멀리 가시오, 곧 재난이 닥치니 당신은 빨리 떠나시오 단 가다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되오" 중은 의혹의 말을 남긴채 어디론가 가 버렸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하며 빨리 집을 떠나자고 했다. 노인이 계속 하여 묻자 며느리는 재앙이 닥친다는 중의 말을 듣지 노인은 비웃으며 "돌파리 중"이라고 최었다. 며느리는 아기를 업은 채 집을 나왔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무언가 무너지는 큰 무서운 소리가 들렸다. "절대로 뒤를 보아선 안되오" 중의 마지막 말이 귀에 메아리쳤다. 여인은 마구 달려갔다. 하지만 며느리는 너무 궁금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으리으리한 집 넓고 기름진 문적옥답이 썰기고 큰 연목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그녀는 아기 업은 형상의 바위로 변했다. 칠삭둥이 남편이 성실한 일군이 되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것이 사라진 후였다. 그는 자신이 욕심많은 아버지를 동정하고 효성스런 아내에 감복하여 외로운 장인장모를 모셨다 한다. 그 바위는 일명 어금니 바위라고 하며 지금도 염치면 서원리 2구 뒷산에서 뒤를 돌아본 채 서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때의 큰 연못을 장자못이라 하며 아직도 남아 있다.

선 돌 : 불무실 입구와 상성리에 옛날에 장사가 큰돌을 지고 가다가 놓았다고 한다. 거리를 재는 표적이었다고 한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상성 김씨 시제가

음력 10월 1일, 5일, 10일, 15일에 있다.

· 상성리 입구 길 상하로 상성리부터 아산리산까지 큰느티나무가 많이 있었고, 잡목이 울창하여 길손이 무사하길 비는 마음에 돌을 많이 쌓아 놓았다. 음력 정월 보름때면 무녀를 이 액막이로 돈과 떡을 놓고 오색형겼을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 이나무들이 6. 25 전란당시 정재성 영인 지사장이 미신 타파를 내세우며 베어버렸다고 한다.

· 연극

김천희라는 청년이 1947년부터 연극을 시작하여 매년 추석때 마을 주민을 모아 놓고 62년까지 공연을 했다고 한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성문영 : 1887년 4월 4일~1963년 2월 23일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에서 출생. 형영달, 박상진, 김종환, 재기중, 장두환, 박세규, 김경태등과 대구 달성 공원에서 동지를 구함. 십여 차례 의거에 참여 최선봉에서 용맹을 떨쳐 왜경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다. 향년 76세를 일기로 1963년 2월 23일 한많은 생을 마쳤다. 묘는 영인면 상성리 산 71-5에 자리잡고 있다.

10) 종교단체

이 마을에서 활동 중인 종교단체는 조사되지 않았음.

11) 공장현황

구용산업 대표 김준성 상성리 226-1번지 생산품목 : 강판제조업

영진전산품 대표 박영우 상성리 산 88-8 생산품목 : 상업인쇄

12) 마을의 특성

상성리에는 성산 김씨가 입향하여 살아온 기념비(성산김씨 세거비)가 있으며, 지금도 32호에 이른다.